

## 東洋哲學과 韓醫學

朴 贊 國

전 경희대, 만당한방병원장

### <Abstract>

Oriental medicine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unique philosophical foundation, on which it firmly stands until now. However, since the western medical methods are well known, the theory of the Oriental medicine is frequently disregarded.

Although for Oriental medicine, it will be harder to attract people and it is shown to be a less developed technique, the study and the education, which is based strongly on the philosophy of Oriental medicine, are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at first, the education of chinese texts and Oriental medicine classics should be emphasized.

Secondly, the basic medicine education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Yin-Yang and Five Phases theory.

Thirdly, the clinical medicine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Oriental medicine principles of Ordering of Patterns and Deciding Treatments rather than introducing western technical terms and diagnostic methods.

Key Words: Oriental medicine, philosophy, Yin-Yang and Five Phases theory

### 1. 哲學과 學問

몇 해전 모 기업에서 주최한 東西醫學의 융합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한 다수의 西洋醫學자들이 무조건적인 東西醫學의 一元化를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西洋醫學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東洋醫學을 하는 사람들도 醫療의 一元化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논자의 생각은 다르다. 學問은 반드시 哲學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東西醫學이 哲學이 다른데 어떻게 쉽게 一元化가 될 수 있겠는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 西洋醫學은 그 哲學的 배경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西洋醫學의 이론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에 따라 치료법이나 약품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西洋醫學을 가지고 그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哲學的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方向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사실 西洋醫學에서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항생제나 호르몬제, 진통제가 도리어 스스로에게

서 배척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西洋醫學에 비하면 韓醫學은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韓醫學도 역사적으로 보면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면 宋, 金, 元醫學이나 明, 淸의 醫學은 그 이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도 三國時代 보다는 高麗가, 高麗보다는 近世朝鮮의 의학이 훨씬 발전하였고 四象醫學의 출현은 더욱 확연한 의학의 발전이 아니겠는가?

우리 東洋醫學은 西洋醫學과 달리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다. 즉, 西洋醫學처럼 앞의 理論이나 治法, 藥物을 부정하지 않고 앞의 것을 이어받아 그 바탕에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비록 그 속도가 느리게 보일는지 모르나 확실한 전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에 만약 확실한 방향을 잡지 않고 간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육지에서 가까울 때에는 <그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육지가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인다면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도 있다.

우리의 學問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처음의 출발은 인류의 보건 복지를 위하여 출발을 했지만 확실한 哲學의 바탕을 가지고 그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의학의 발전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學問, 특히 최근의 과학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물질 문명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學問에 비하면 近視眼的이고 인간 중심적인 學問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哲學은 보통의 學問에 비하여 그 보는 시야가 空間的 時間的으로 넓고 길며, 물론 인류를 위한 哲學이지만 인간만이 아닌 모든 萬物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를 함께 생각

하는 것이 바로 哲學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學問은 반드시 哲學의 背景을 가져야 그 방향을 바로잡고 또 스스로 施行錯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II. 東西醫學의 哲學

앞에서 西洋醫學엔 哲學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西洋醫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哲學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西洋醫學은 서양의 自然科學에 그 根據를 두고 있으며 自然科學은 科學哲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科學哲學이라 함은 베이컨과 뉴턴, 칸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物質을 精神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認識하고, 논리의 전개와 증명을 演繹의 방법보다는 歸納的 方法을 선택하고, 우주를 機械的으로 보고 또한 모든 變化原理가 數學的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科學哲學은 19세기 후반부터 뉴턴의 과학이 흔들리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西洋醫學은 아직도 뉴턴 식의 科學哲學에 기반을 두고 의학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科學이란 哲學이나 宗教, 藝術 등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서양의 自然科學이 기존의 宗教나 哲學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척감이 강하겠지만, 원래 學問은 哲學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꾸로 學問을 가지고 哲學을 만들어 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만물 특히 사람은 神이 있고 氣와 形質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神을 바탕으로 하여 氣와 形質을 연구해 나아가야 할텐데, 서양에서는 科學이 神을 버리고 독립하여 나왔으

므로 거꾸로 形質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神을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 같다.

그러나 形質의 모든 法則을 찾았다고 생각한 과학이 19세기말부터 그 기초가 흔들려 버렸으니 科學哲學이 발전할 근거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 哲學的 背景을 잃어버린 과학은 오직 인간의 복지향상과 그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學問으로 발전하였고 의학도 역시 실용만을 추구하는 學問으로 눈부사게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인간의 복제마저도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西洋醫學은 物質의 독립적 存在를 인정하는 實在을 택하였고 事物의 인식에 있어서는 과학적 인식 즉, 실험이나 논리적 입증 가능한 객관적 분석적 인식론을 택하였고 논리에 있어서는 오직 실용만을 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東洋醫學의 哲學은 어떠한가? 우선 存在論에 있어서 東洋醫學은 物質과 精神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物質은 精神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식에 있어서는 서양 과학의 客觀的 分析的 인식보다는 主觀的 綜合的 인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는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윤리관에 있어서는 東洋醫學은 정신을 중시하므로 실용성보다는 합리성을 더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東洋哲學은 의학이 성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이 여전히 東洋醫學의 사상적 뼈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III. 東洋哲學의 人間觀

東洋哲學이나 韓醫學에서 인간을 보는 대상관은 어떠한가? 東洋에서도 물론 사람을 다른 사물에 비하여 貴重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을 다른 사물과 分離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즉 이 세계에 존재

하는 모든 사물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흔히 요즈음 天人相應思想이라고도 말하는데, 天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서로 나 외의 사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萬物이 서로 相應하고 있다고 보는 根據는 무엇인가? 모든 만물은 개개의 形質을 가지고 있지만 形質이 있기 전에 氣가 있어 모든 변화를 주재하고 또 氣 이전에 神이나 靈이 있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태초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미미한 무엇이 생기고 氣와 質, 形등이 생겨났으므로 未에서 보면 서로 分化되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本으로 들어가면 모두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근원하고 있으므로 물물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물이 모두 하나에서 근원하고 있으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아울러 이 만물의 生成變化를 지배하는 법칙도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언뜻 보면 生物과 無生物이 다르고 動物과 植物이 모두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形質의 세계를 떠나 氣와 神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들의 生成變化의 법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東洋哲學에서는 이 모든 사물의 生成變化를 지배하는 법칙을 陰陽五行으로 이해하고, 또 실제 이를 모든 學問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陰陽五行이란 形質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즉, 陰陽五行이란 形質이전 氣나 神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神은 보통 사람으로는 理解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로 氣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陰陽五行은 누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그저 만물의 生成變化를 관조하다보니까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或者는 陰陽五行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사람이 있다. 陰陽五行은 맞고 틀리고가 있을 수 없다. 그저 만물의 변화를 보고 느낀 것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그 眞假를 論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도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生成變化하는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東洋哲學의 人間觀이다. 단지 다른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다른 사물에 비하여 神靈스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보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東洋哲學이 東洋醫學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냐에 대하여는 논자가 직접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단지 醫療의 목적이나 가치 평가에서 어떻게 응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 IV. 治療의 對象

환자가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것은 苦痛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다. 그러나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韓醫學과 西洋醫學이 治療의 對象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즉, 西洋醫學은 사람의 形質을 그 치료대상으로 하고 그 形質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물질을 찾아내어 그 물질의 異常狀態를 바로잡는 것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세포나 조직 속에 어떤 물질이 많든지 적다든지 또는 異質이 존재하는 것을 이상상태로 보고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치료의 목적을 삼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세포나 조직이 生成變化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에 대하여는 뚜렷한 法則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變化過程에서 구체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因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東洋醫學에서 形質의 변화나 운동은 반드시 陰陽五行의 법칙을 따르고 그 변화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기 어려운 물질 즉, 氣의 단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氣라는 것은 아주 主觀적이고 難解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자연과학으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이 氣라는 존재는 물질적이면서 다분히 정신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 氣란 精神과 物質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精神과 物質을 분리하는 西洋醫學이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東洋醫學의 대중적 醫療의 목적은 바로 이 氣를 조절하는 것이다. 西洋醫學이 形質 즉, 物質을 醫療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東洋醫學은 形質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氣를 그 醫療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醫學은 形質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精神까지를 그 醫療영역에 쉽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氣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상의 醫療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東洋哲學에서는 氣 이전에 精神이나 法則 같은 형이상적인 존재를 많이 인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衆의 醫療에서는 氣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학의 범위를 한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특수한 분야에서는 氣 이전의 神이나 法 등의 것을 응용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 V. 醫療의 目的과 評價

WHO의 현장을 보면 醫療의 목적은 인간을 肉體的 精神的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醫療 현장에서 정신적 건강이 뒤로 내팽개쳐진 지 오래다. 단지 고통

의 해소도 힘이 들어 험뎡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지금 現代醫學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한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였으면 고통의 해결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醫療의 방향이 돌려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요즘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西洋醫學의 3대 약물인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던 말인가? 도리어 이러한 약들은 인간의 생체리듬을 깨뜨리고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판받은 지 오래 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뚜렷한 哲學的 背景이 부재한 學問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던 말인가? 대중은 어리석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해소하고 가시적으로 病巢를 보여준다고 西洋醫學을 選好하기 때문에 西洋醫學이 우수한 것이 아니며, 西洋醫學을 전공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하여 西洋醫學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우리 韓醫界에서도 일부 한의사들이 과다한 투자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醫療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哲學的으로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醫療의 가치는 商業的으로 평가되어서 아니 되며 學問的으로 평가되어서도 아니 된다. 반드시 哲學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은 評論이나 評價를 傳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독립된 學問 분야도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있어서는 전문평가인이 한사람도 없고 學問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논문도 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분야는 관련 단체의 이익이 침해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으로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나 또는 醫療界의 진보세력이 단체를 만

들고 또 대학에서 이 분야의 學問을 개척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韓醫學은 분명한 哲學的 기반 위에 學問이 성립되었고 지금도 그 기반 위에 굳건히 서있다. 그러나 西洋醫學의 도입으로 그 哲學的 기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매우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韓醫學이 비록 일시적으로 대중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으로 발전이 느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哲學的 기반을 다지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 實例로 영어교육에 앞서 漢文教育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內經 등의 原典 교육도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生理, 病理와 本草나 經穴學 등은 陰陽五行의 이론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실재 臨床教育에 있어서도 서양의 의학 용어나 진단법의 도입 등을 자제하고 韓醫學의 辨證論治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